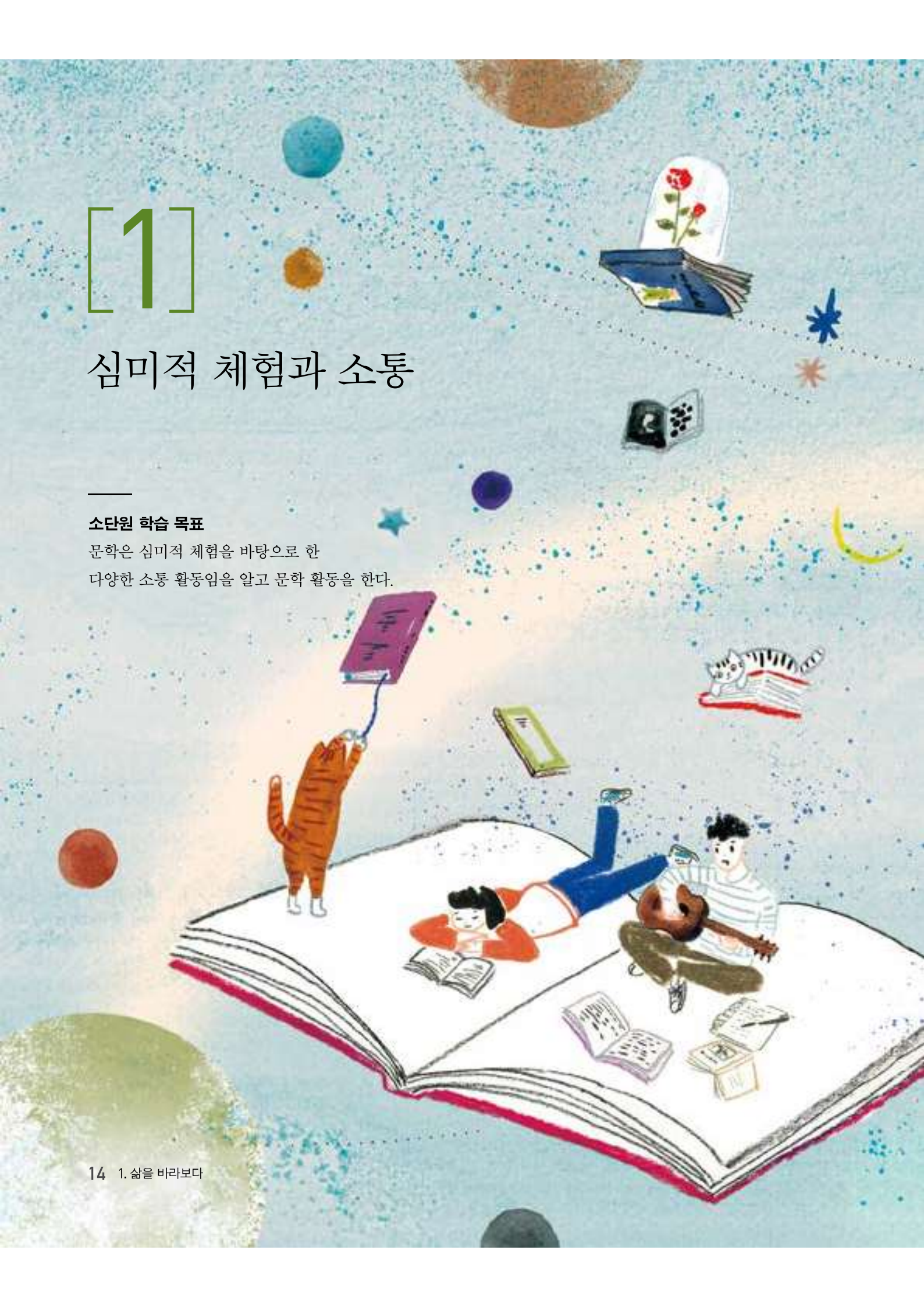


# [1]

## 심미적 체험과 소통

### 소단원 학습 목표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 생각열기

1

- **가~라**의 사진 가운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고르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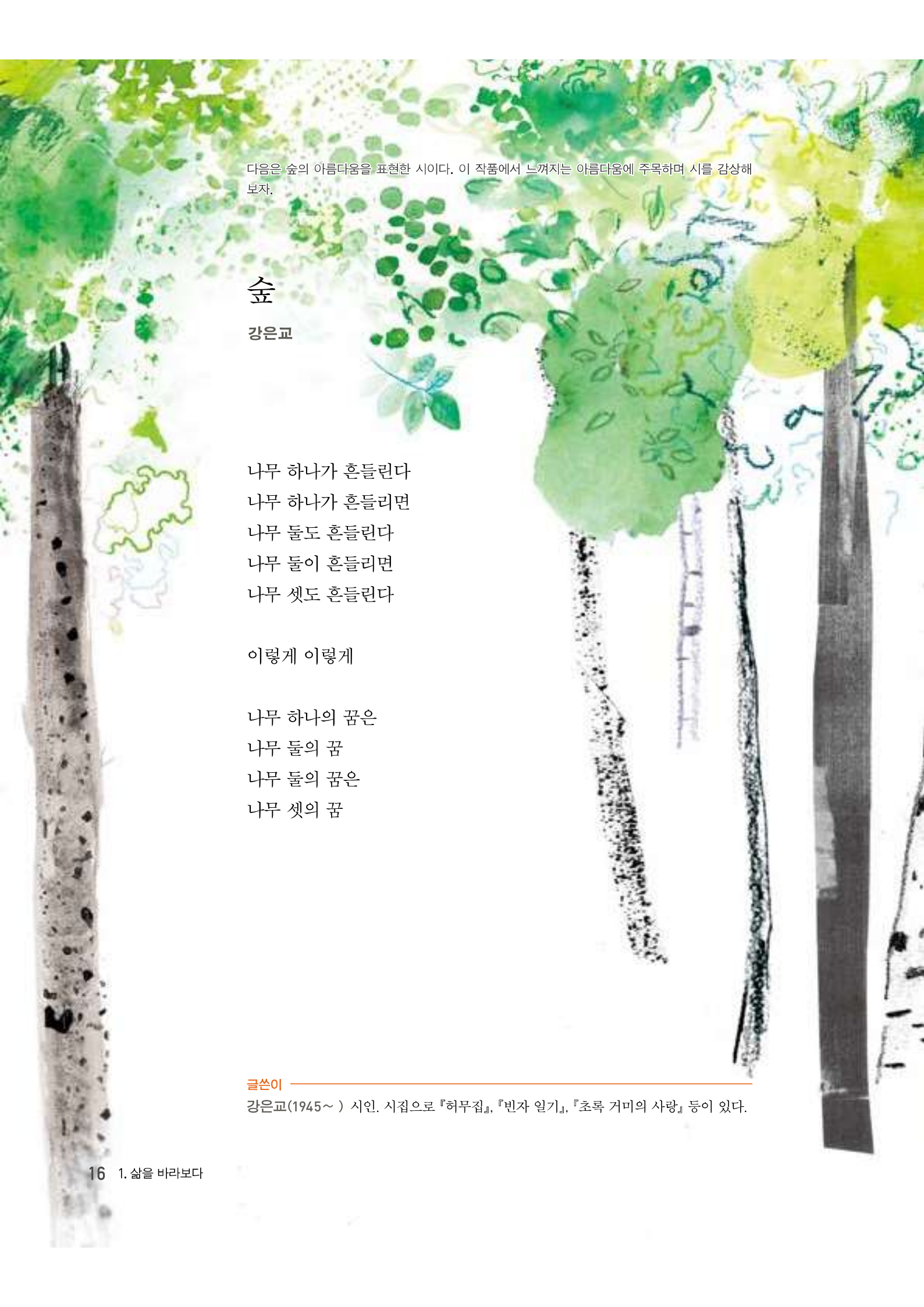
**다**



**라**







다음은 숲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이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주목하며 시를 감상해 보자.

## 숲

강은교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 둘도 흔들린다  
나무 둘이 흔들리면  
나무 셋도 흔들린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나무 둘의 꿈  
나무 둘의 꿈은  
나무 셋의 꿈

글쓴이

강은교(1945~ ) 시인. 시집으로 『허무집』, 『빈자 일기』, 『초록 거미의 사랑』 등이 있다.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젖는다  
옆에서  
나무 둘도 고개를 젖는다  
옆에서  
나무 셋도 고개를 젖는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젖는다

이렇게 이렇게  
함께





1

「숲」의 내용을 떠올리며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1) 나무가 흔들리는 까닭이 무엇일지 말해 보자.

(2) 나무들의 꿈이 무엇일지 추측하여 말해 보자.

(3) 4연의 “고개를 젖는다”는 나무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일지 써 보자.

(4) 6연의 “이렇게 이렇게 / 함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지 말해 보자.



2

다음은 이 시를 쓴 시인과 면담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질문 1: 시「숲」을 쓸 당시에 겪은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에서 실제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시인: 아직도 이 시를 쓰게 된 과정이 아주 선명히 기억나요. 딸이 어렸을 때였지요. 별이 좋은 날이면 옥상에 올라가고는 했어요. 거기서는 맞은편 산이 아주 가깝게 보였어요. 숲을 보자 시를 한 편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이 내 앞으로 무수한 나무를 품은 모습으로 달려왔어요. 그 나무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을 따라 함께 흔들렸어요. 숲 전체가 너울너울 흔들렸어요. 그것은 내게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고, 곧 시의 단어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첫 행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이어서 둘째 행도 튀어나왔지요.

**질문 2:** 시인으로서 이 시를 통해 표현하려고 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인:**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 나무 하나가, 나무 둘이, 나무 셋이 함께 흔들리는 것,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걸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본다면 상식이나 교양, 또는 지식 같은 것에 기대어서 보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잡아챌 때의 즐거움, 그것이 아마 시 쓰기의 매력, 또 시 읽기의 매력일 거예요.

- (1) 시인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썼는지 말해 보자. 그리고 시인이 이 시를 통해 표현하려고 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써 보자.

- (2) 이 시를 읽으며 내가 느낀 ‘시 읽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써 보자.

#### 도움!

시를 읽으며 느낀 감동이나 즐거움을 자유롭게 써 보자. 인상적인 구절이나 표현 방식 등에 주목하여 그에 관한 자신의 감상을 쓸 수도 있다.

- (3) (2)번 활동에서 쓴 내용을 모두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며 내가 느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함께